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예보(FDIC) 의장, 연방정부 부채위기 가능성 지적

-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실라 베어 의장은 미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 7년간 두 배나 증가했으며,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국민 1인당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총 14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장기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.
 - 사회보장(Social Security)보험, 메디케어(Medicare), 메디케이드(Medicaid)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45%에 달하며 2013년까지 세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가 정부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.
- 향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62% 수준에서 2035년 185%로 급증하게 되며, 결국 정부 채무이행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함.
 - 미 국채에 대한 디폴트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, 2bp에 불과했으나 2009년 초, 100bp까지 치솟은 후 현재 41bp에 머무르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불안정한 신호가 나타남.
 -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의 70%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국채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정부와 민간의 차입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.
- 최근 몇몇 정부 정책기구에서 연방정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량지출 한도 설정, 포괄적인 세제 개편, 보건지출 축소 등을 제안하면서 연방정부 부채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.
 - 베어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
(Washington post, 11/26)